

“효천지구 아파트 분양 적정가 830만원”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 건설사 택지비 부담 해도 이익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이 효천지구 아파트 분양가 830만원(3.3㎡)이 적정가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미숙 의원은 (효자3,4동)은 10일 제3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 서부권 도시개발사업지 효천지구 아파트는 분양을 앞두고 벌써부터 평균 분양가 1000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건설사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도 830만원이 적정가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효천지구는 토지주 집단 환지방식인 민간택지여서 분양가 심사대상은 아니지만, 이곳의 분양가가 치솟으면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쳐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전주 서부권도시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전주권 아파트 분양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013년 전주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600만원대였는데, 201년 혁신도시 3.3㎡당 평균 분양가 720만원, 하가지구는 740만원을 뛰어났다.

지난해도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는 꺾이지 않아 만성지구 810만원, 예코시티도 800만원을 가뿐히 넘겼다.

이미숙 의원은 “인구는 정체되고 생활형편을 갈수록 어려워지는데도 전주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4년간 50% 이상 폭증했다”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 3개 블록(20만4378㎡, 3669세대)은 ‘환지’ 방식인 민간택지로 이중 A1 블록 1120세대를 다음 달 초 분양 예정이다.

분양 예정인 A1 블록 6만2529㎡(1만 8915평) 택지는 공급예정가는 3.3㎡당 378만원였는데, 낙찰결과 우미건설이 3.3㎡당 552만원으로 전주지역 택지 중 최고가로 매입 했다. 과당경쟁으로 건설사가 최고가로 택지를 매입한 부담은 고스란히 전주시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직접 아파트 분양가(택지비+건축비+가산비) 책정 계산한 결과 택지비 300만원, 건설비 500만원, 가산비 30만원을 더할 경우 적정 분양가는 830만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효천지구 A1 블록 전체 택지비는 3.3㎡당 552만원이지만, 아파트 용적률 200%를 적용하면, 기본택지비는 276만원으로 계산된다는 설명이다.

아파트 건축비도 간접비(설계비, 노무비, 재료비 등)까지 포함해도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가산비까지 포함해 건설사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한 효천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830만원이 적정하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건설사들도 적절한 이윤으로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교통정보 홈페이지 편리해진다

교통지도 서비스 개선 · 모바일 이용자 편의성 높이는 등

전주시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에 앞서 교통정보 홈페이지(www.w.jns.go.kr)를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바꿨다.

전주시는 교통정보 홈페이지의 노후화된 교통지도 서비스를 개선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교통정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교통정보 홈페이지의 버스정보검색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 홈페이지는 버스정류장명과 노선번호를 알아야 버스정보검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목적지만 검색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과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노선을 모두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들도 쉽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페이지도 제작됐으며, 팝업기능을 통해 버스결행정보와 도로통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여기에 시는 접속자의 기기의 화면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반응형 웹방식’(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홈페이지를 구성해 스마트폰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교통정보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내버스 모니터링과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도지정 무형문화재 인정서 교부

판소리 김소영 명장, 민속목조각장 김종연 명장, 색지장 김혜미자 명장, 지승장 김선애 명장 등 4명

전주에서 활동하며 우리고유의 전통 문화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힘써온 민간문화재들이 늘어나면서, 전주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원도심 100만평 아시아문화심장터’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게 됐다.

전주시는 10일 전주시청에서 올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판소리 김소영 명장과 민속목조각장 김종연 명장, 색지장 김혜미자 명장, 지승장 김선애 명장 등 4명에게 도지정무형문화재 인정서를 교부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보유한 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2명(가야금산조 및 병창, 선자장)과 명예보유자 3명을 포함한 30개 종목 45명(2개 단체 포함)으로 늘어나, 수많은 장인들의 손길과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세계적인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전주는 그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를 보유한데다, 무형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위한 국가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까지 위치해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형유산도시로 인식돼왔다. 이는 전국 시·군 평균 1.7명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반면, 전주는 40여명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10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올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판소리 김소영 명장과 민속목조각장 김종연 명장, 색지장 김혜미자 명장, 지승장 김선애 명장 등 4명에게 도지정무형문화재 인정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전주시가 보유한 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2명(가야금산조 및 병창, 선자장)과 명예보유자 3명을 포함한 30개 종목 45명(2개 단체 포함)으로 늘어나게 돼, 수많은 장인들의 손길과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세계적인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원도심 100만평 아시아문화심장터’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도 오랜 역사와 우수한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대를 이어 명맥을 계승해온 수많은 무형문화재들이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어 가능했다는 평이다.

또, 원도심 등 전주 곳곳에는 무형문화재의 손길이 스며있는 한옥과 한복, 한식, 한지, 판소리, 부채, 공예품

등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많이 남아있다.

시는 전주가 보유한 다양한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무형문화재들의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를 해마다 개최하고, 국립무형유산원의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을 통해 전주시 무형유산을 조사·기록화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형유산 보존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이모씨 징역 1년 6개월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0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4일 0시10분경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욕을 하고 운전 중인 택시기사 A(45)씨의 머리를 뒤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A씨로부터 “전주역에 다 왔는데 어디로 갈까요”라는 말을 들자 “누가 전주역으로 가자고 했냐.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지”라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해 목적지를 잘못 말해놓고 택시기사가 목적지로 가지 않겠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러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미 동종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같은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전북도 지방세정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주시는 2016년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방세 징수여건에도 시 산하 전 세무담당 공무원이 나서 강력한 징수활동과 체납처분 등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2016년 결산 기준 도내 세수는 1조 8860억원으로 전주시는 도내 세수규모의 약 31.3% 정도에 해당하는 5949억 원을 징수했고, 특히 시세는 전년대비 270억원이 증가한 3170억 원을 징수하면서 징수율(94.3%)은 전년대비 0.3% 상승한 높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전주시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을 연3회 실시, 고액·고질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특화된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등 한층 강화된 체납자의 재산압류, 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새벽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신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경기침체로 지방세 납부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수준 높은 납세의식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평하고 정확한 부과와 선진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세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전주시민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대비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전주시가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앞서 고사동 영화의거리로 통하는 오거리에 보행자 안전과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고사동 차 없는 거리와 영화의거리 입구 교차로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총 3000만원을 들여 오거리문화광장 주변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오는 3월 중 공사에 착공, 영화제 개최 전인 4월 초까지 정비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회전 교차로가 설치되면, 차 없는 거리와 영화의거리, 오거리 문화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전주국제영화제도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